



세계 주요 타이어업체 최근 동정



미·쉐·린



● 오하이오 공장 폐쇄

미쉐린 북미사는 미국 Ohio주 Mogadore 생산설비에서의 타이어 생산을 Alabama주 Tuscaloosa의 BFGoodrich 타이어 생산 공장에 통합시킬 계획이다. Mogadore 공장은 현재 약 70명의 종업원으로 압력등반용과 경주용 타이어와 같은 특수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 동 생산 이전 계획은 6월에 시작되어 Mogadore 공장에서의 생산 가동 중지과 동시에 10월 말쯤 완료될 예정이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7.5 · 6월호〉

● 독일 공장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투자 계획

미쉐린사는 독일 공장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평균 주당 노동시간을 75분 연장하여 39시간으로 하자는 데 합의하고,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독일 공장에 약 3억 4000만\$을 투자할 계획이다. Michelin Reifenwerke K.G.a와 IG BCE 노동조합은 동사의

5개 독일공장에서 고용보장을 위해 기획된 동사와의 5년 합의서에 서명하고 노동쟁의 등으로부터 동 공장들에서의 생산성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동사는 독일에서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공장인 Bad Kreuznach와 Hallstadt, 트럭용 타이어 공장인 Homburg/Saar과 Karlsruhe 공장, 그리고 비드와이어 제조 공장인 Trier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은 연간 1,700만개의 타이어 생산 능력과 5,600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7.16일자〉

● 캐나다 Bridgewater 공장, 생산력 확대

미쉐린 북미사는 캐나다 Nova Scotia주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생산 공장인 Bridgewater 공장에서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향후 2년에 걸쳐 4,150만\$을 투자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에 따라 확대되는 생산능력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약 48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Nova Scotia 주정부가 560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동사는 밝혔다.

이번 투자로 동 공장은 설비 이전성이 뛰어난 더욱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설비를 갖추게 것이며, 이에 따라 복잡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더 큰 규모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미국 「Rubber & Plastics News」 07.7.23일자

● 쿠퍼 자회사 Oliver Rubber 인수

미쉐린사는 올해 9월말에 쿠퍼사의 자회사인 Oliver Rubber Co.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69,000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재생 산업에 있어서의 미쉐린사의 시장입지가 더욱 확고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North Carolina주 Asheboro에 위치해 있는 Oliver사는 연간 약 1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8.13일자



브 · 리 · 지 · 스 · 톤

● 「Package Plan」으로 운수회사의 타이어관리 일괄

브리지스톤사는 대형운수회사 등을 대상으로 타이어 교환, 안전관리 등의 타이어 유지·보수를 일괄하여 해주는 「Tire Package Plan」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동 플랜은 연료비 양등 등 어려운 경영여건에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 타이어관리를 하여 줌으로써 안전 확보, 타이어수명 연장 등으로 원가절감 등을 도모하여 주는 새로운 형태의 트럭·버스용 타이어 판매 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동 플랜 체제에서는 운수회사로부터 타이어교환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매니지먼트 등을 일괄적으로 아웃소싱하여 브리지스톤이 운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브리지스톤은 동 계약에 근거하여 타이어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나, 현장에서의 신품 타이어구입, 정기적인 유지·보수작업 등은 지역 타이어점이나 직영점 등이 하청을 받고 이들이 브리지스톤으로부터 요금, 작업요금 등을 받게 된다.

동사는 몇 년 전부터 대형할인점 체인 배송차에 대해 이러한 타이어관리의 일괄아웃소싱방식을 제안·도입,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트럭업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패키지 플랜을 도입한 것이며, 약 4년 전부터 일부 운수회사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현재는 대형 운수회사를 중심으로 수습개사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사는 본격적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향후 계약대상업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 : 일본 「주간 타이어신보」 07.6.4일자



굿 · 이 · 어

● 07년 상반기 실적

굿이어사의 07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92억\$에서 2.4% 증가한 94억 2,000만불을 기록하였다. 동

기간 1억 1,800만\$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7,600만\$의 순이익과 대비된다.

한편, 동기간 굿이어 북미사는 타이어 판매수량이 45.5%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6.2% 감소한 42억 9,000만\$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900만\$에서 32.7% 감소한 3,300만\$이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7.30일자)



콘·티·넨·탈

●슬로바키아 Matador의 51% 지분 인수 계획

콘티넨탈사는 슬로바키아의 Puchov 주재 타이어, 고무 및 기계류 사업체인 Matador 그룹의 51%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슬로바키아의 독과점 관리당국의 승인여부에 따라 계획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동사는 6.5일경에 동 인수건에 대한 구체적 결정 및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동사는 타이어 부문에서 힘 있는 합작파트너와의 관계 강화와 동시에 동부유럽시장에서의 생산기지 확대뿐만 아니라 저비용 국가에서의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타이어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al」 07.5·6월호)



피·렐·리

●미국 Mount Vernon 공장 현대화 및 설비증설

콘티넨탈 북미사(CTNA)는 미국 Virginia주의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생산 공장인 Mount Vernon 공장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확장을 위해 7,800만\$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트럭용 타이어 생산을 위한 최신 시설과 보관 및 기타 신규 설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장 전체의 확대를 위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설립된 지 33년 된 동 공장은 미국 시장에서의 90% 수요를 커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동사는 구체적인 생산능력은 밝히지 않았으나 일간 2만 8,000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건설과 설비의 설치는 곧 시작될 것이며, 08년 말경에 모든 확대 공사는 완료될 예정이다. 동 투자는 작년에 동사가 밝힌 06~09년 간 승용차용 및 트럭용 타이어 부문에 있어서의 7,000\$~1억\$ 투자 프로젝트에 추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7.16일자)

●Turin 승용차용과 트럭용타이어 공장 통합

피렐리사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Turin에서의 승용차용과 트럭용타이어 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현재 트럭용타이어 공장 부지에 승용차용과 트럭용타이어 생산을 위한 “최첨단 기술·산업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동 계획의 투자액과 일정에 대해선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사는 신규 통합 공장에

MIRS(Modular Integrated Robotised System) 타이어 신 제조 시스템과 CCM(Continuous Compound Mixing) 고무 컴파운딩 신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동 공장은 고성능 타이어를 중심으로 생산, top-line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사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조공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Turin 북동부 근교의 Settimo 트럭용 타이어 공장은 24헥타아르 면적에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600명의 종업원과 연간 약 2,000개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설립한지 53년 된 승용차용타이어 공장은 1,150명의 종업원과 연간 타이어 13,000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량 경주용 타이어이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rd」 07.7 · 8월호〉

● 07년 1/4분기 실적

피렐리사는 금년 1/4분기에 전체 사업부문에서 전년 동기대비 10.8% 증가한 17억 4,000만\$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순이익에서는 전년수준인 7,510만\$에 그쳤다.

타이어 사업부문에서는 6.0% 증가한 14억 1,000만\$의 매출과 5.9% 감소한 7,750만\$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며, 지속적인 원재료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4.5% 증가를 보였다.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부문에서는 판매량 증가, 적정한 가격 인상책 그리고 제품믹스에 힘입어 매출과 이익 면에서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고성능 타이어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7.2일자〉



요·코·하·마



● 일본과 태국 공장서 타이어 생산설비 증설

향후 2년간 요코하마시는 일본과 태국 공장에서의 타이어 생산설비 증설을 위해 1억 4,000만\$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8,300만\$의 투자로 09년까지 Shinshiro -Minami 공장의 고성능타이어 생산능력을 3배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설립된지 3년 된 동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현재 100만개에서 09년에 310만개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태국에서는 Rayong, Amata 주재 트럭타이어 생산 공장에서의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 연간 생산능력을 2배로 늘려 280만개까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며, 투자규모는 5,8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유럽 「European Rubber Journrd」 07.5 · 6월호〉

● 07년 회계연도 실적

요코하마 일본사는 지난해 원재료 가격 앙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세금 혜택의 영향으로 07년 회계연도에 기록적인 매출액을 보였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 면에서는 감소 실적을 보였다. 07년 회계연도 동사의 매출은 10.1% 증가한 42억 5,000\$이었으며, 이는 판매량 증가와 엔화 약화에 따른 외환 차익에 따른 것이다. 영업이익은 4% 감소한 1억 8,030만\$로 4.2%의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며, 순이익은 23.7% 감소한 1억 4,020만\$을 기록하였으나 이 같은 높은 감소세는 미국지사에서 자산 평가절하에 따른 세금혜택의 영

향으로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난 06년 회계연도의 순이익에 따른 상대적인 것이다.

한편, 요코하마 타이어 그룹 전체 매출은 유럽과 호주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기타 지역에서의 성장과 일본내에서의 신차용(OE) 타이어 매출 성장에 힘입어 11% 증가한 31억 9,000만\$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19% 감소한 1억 2,560만\$이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6.18일자)



한·국·타·이·어

● 헝가리 Dunaujvaros 공장, 가동 개시

한국타이어는 유럽지역 투자에 있어 업계 가장 큰 투자액인 6억 5,000만\$로 최근 설립한 헝가리 Dunaujvaros 공장에서의 타이어 생산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동 공장의 최초 종업원수는 810명이며, 전 생산라인이 풀가동되면 향후 1,5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향후 동사는 2010년까지 1,00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동시에 유럽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7.2일자)



쿠·퍼

● 07년 상반기 실적

쿠파사는 올 상반기에 전년 동기 12억 2,000만\$에서 17.9% 증가한 14억 4,000만\$의 매출과 전년 동기 2,590만\$의 순손실과 대비되는 3,840만\$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동사의 실적 향상은 적절한 가격인상과 모든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한편, 동사 북미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 9억 5,930만\$에서 13.4% 증가한 10억 9,000만\$이었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8.13일자)



금·호·타·이·어

● 중국 Nanjing 트럭·버스용 타이어 공장 건립 착수

금호타이어는 지난 5.16일 동사의 네 번째 중국 공장인 Nanjing 트럭·버스용 레디얼 타이어 공장 건립에 착수하였다. 9,000만\$가 투자되는 동 공장은 08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며 연간 3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동 프로젝트는 동사의 수출 시장 전략 다변화와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포함한 생산 확대를 통한 중국 타이어 시장에 대한 적극적 공략 계획의 일환이다. 한편, 중국의 도시 발전과 함께 트럭·버스용 타이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사는 Changchun에 승용차용 타이어

제조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며 동 공장은 올해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310만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6.4일자〉



도·요

● 미국 Bartow 공장 생산력 확대

도요사는 5,000만\$의 투자로 미국 Georgia주 Bartow 주재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을 09년까지 65%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은 연간 330만개로 확대될 것이며, 북미주재 자동차 제조사들의 신차용(OE) 타이어의 향후 수요를 커버할 예정이다.

60만 평방미터 면적의 동 공장은 04.6월에 설립되었고, 연간 16-24인치 고성능 타이어 200만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06.3월에 트럭용 타이어 생산을 시작하였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6.4일자〉

● 07년 회계연도 실적

2007년 회계연도에 도요 일본사는 전년대비 6.7% 증가한 27억 4,000\$의 기록적인 매출을 보였으나 원재료 가격상등의 영향에 따라 영업이익에서는 8,010

만\$로 28.4%의 감소를 보였다. 한편 순이익은 일부 쇼핑센터 리스 사업부의 매각에 따른 한시적인 이익으로 11.8% 증가한 5,140만\$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타이어사업부문의 매출은 8.8% 증가한 18억 7,000만\$이었으며, 영업이익은 33.6% 감소한 6,980만\$을 기록하였는데, 이 같은 매출에 있어서의 증가는 주로 해외 사업장에서 판매 증가에 따른 것이며 일부 엔화 약화에 따른 외환차익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미지역에서의 매출은 20.2% 크게 증가한 8억 3,890만\$을 기록하였으며, 일본 국내시장에서의 매출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증가가 신차용 부분과 교체용 겨울용 타이어 판매에 있어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자료 : 미국 「Tire Business」 07.6.18일자〉